

## 통일 이후 삶의 변화와 희망 - 통일사회를 서술한 잉고 술체의 『심플 스토리』와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정영호\*

### I. 서론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고 이듬해 동서독의 통합과정을 겪으면서 서독 사람들은 냉전의 종식과 유럽의 안정적인 평화의 실현을 기대했다.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현실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평화적으로 몰아냈다는 자부심과 함께 향후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소망했다. 하지만 서독 사람들은 독일통일 직후 통일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동독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강사

1) 1980년대 초부터 동독 민중들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에 대한 불만은 이미 팽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탈긴장 정책과 맞물려 1989년 가을 동독정권에 대한 저항과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집회로 이어졌다(International Moctary Fund 1999, 194 참조).

익혀야 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의 삶의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통일 초기의 상황을 독일 작가들은 출신과 세대에 따라서 특징적인 서술을 보였다. 특히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에서 성장하고 전환기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일체의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적 사고에 회의적인 동독 출신 제3세대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 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토마스 브루시히(Thomas Brussig)와 잉고 쉘체(Ingo Schulze)는 동독의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와 변화된 개인적인 삶의 조건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잉고 쉘체는 1998년 출간된 그의 소설 『심플 스토리(Simple Storys)』에서 전환기 이후 동독 사람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주목한다.<sup>2)</sup> 독일통일 직후 1990년대 옛 동독지역의 소도시 알텐부르크를 배경으로 그는 동독 사람들의 일상 속 삶을 서술한다. 특히 쉘체는 1989년 이후 사회적 변혁을 맞은 등장인물들의 삶을 극적으로 서술하거나 주요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신랄한 묘사나 직접적인 비판을 피한다. 그리고 그는 독일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는 동독 땅에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지 못한 아쉬움을 서술한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와 볼커 브라운(Volker Braun)과 같은 앞선 세대 작가들과 달리 그의 소설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등장인물들의 일상 속 삶을 동독의 몰락에서 독일통일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sup>3)</sup>

2) 잉고 쉘체의 소설 『심플 스토리』에 대한 학술연구는 독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Ulrike Bremer(2002) *Versionen der Wende*, Timm Menke(2001) *Lebensgefühl(e) in Ost und West als Roman*, In: Gerhard Fischer/David Roberts(Hg.): *Schreiben nach der Wende. Ein Jahrzehnt deutscher Literatur 1989-1999*, Walter Schmitz(2000): *Der verschwundene Autor als Chronist der Provinz. Ingo Schulzes Erzählprosa in den 90er Jahren*, In: Volker Wehdeking(Hg.): *Mentalitätswandel in der deutschen Literatur zur Einheit (1990-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소설 『심플 스토리』에 나타난 독일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의 삶의 편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류신 2007, 김용민 2008, 황승환 2010)이 이루어졌다.

3) 1989년 가을 이후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문학의 조건은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동독 출신 작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했다. 크리스타 볼프와 볼커 브라운과 같은 동독 출신 제2세대 작가들은 동독 땅에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와 달리 휴전 중인 한반도에서 남북의 적대적인 대치 상태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문학의 주요한 소재이다. 최근에 남한의 월등한 경제적 우위와 디지털 문명과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들이 통일과 관련된 문학의 소재와 배경으로 활용되는 것은 글쓰기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문화적인 상상력은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환경에서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한반도 통일을 가정한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은 새로운 문학적 시도로 볼 수 있다. 2009년 출간된 소설은 2011년 5월 9일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가상의 통일사회를 서술한다. 소설 속 통일 대한민국은 불법과 폭력으로 상징되는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새로운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의 삶은 계급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응준이 서술한 가상의 통일사회는 과거 제국주의와 같은 식민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평가(이성희, 2014, 379 참조)와 통일 이후 비관적이고 어두운 한반도 상황에 주목하며 “통일 디스토피아”(고인환, 2012, 151)라는 말로 간략히 표현된다.<sup>4)</sup>

이와 같은 독일과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질적인 두 사회가 하나가 되는 통일의 과정과 이후 통일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술체가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통일

---

에 애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연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Selbstmitleid und Zukunfsangst” (Bremer, 2002, 18)을 작품에 표현했다. 이들과 달리 잉고 술체와 토마스 브루시히와 같은 독일통일 이후 작품활동을 시작한 동독 출신 제3세대 작가들은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관심이 없었으며 사회변혁에 따른 개인적인 삶의 조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글쓰기를 시도했다(Bremer, 2002, 18f 참조).

4)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 대한 학술연구는 소설을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분단체제에 대한 성찰(고인환, 2012)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소설에 나타난 국가의 의미(이성희, 2014)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소설 속 통일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절망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서술했다는 서평(강희철, 2009)과 소설의 중심 인물 리강에 대한 삶의 태도와 변화를 살펴본 서평(권희철, 2009)을 주목할 수 있다.

의 과정과 이후 사회적 변화를 재구성한 독일의 통일사회와 이응준이 현재 남한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상한 가상의 통일 대한민국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낭만적이고 모호한 한반도 통일이 아닌 현실적이고 성찰적인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서 필자는 소설 『심플 스토리』와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두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과거의 삶과 통일 이후 일상 속 삶의 연관성, 사회적 변혁 속에서 겪게 되는 인물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의 양상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다.

## II. 사회적 변혁과 삶의 변화

### 1. 통일 이후 달라진 개인의 운명

1998년 출간된 소설 『심플 스토리』는 출간과 동시에 주요 신문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시대소설(ein[] panoramahaft[er] Zeitroman)” (Böttinger, 1998)이라는 호평과 함께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국내를 비롯해 20여 국가에서 번역되었다. 또한 술체는 『심플 스토리』로 <베를린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의 출간 7년이 지난 2005년에는 “현대문학의 고전(ein[] Klassiker der Gegenwartsliteratur)” (Schneider, 2005) 반열에 올랐다는 찬사를 받았다. 현재 그는 가장 성공적인 전환기 소설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전히 동독의 과거와 통일사회에 대한 문학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술체는 소설의 첫 장에서 1989년 가을 동독 민중들이 이끈 대규모 평화집회 이후 급박하게 변해가는 동서독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동독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동독에서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SED) 당원이었으며 학교 교장으로서 동독정권에 충실했

던 에른스트 모이러(Ernst Meurer)와 그의 아내 레나테(Renate)는 1990년 2월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한다. 이들은 서독 뮌헨의 한 여행사에서 준비해 준 가짜 이름이 찍힌 서독여권으로 국경을 넘는다. 모이러 부부의 여행 시점인 1990년 2월은 한 달 후 치러질 동독 총선거와 7월에 시행 될 화폐 및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1989년 가을 동독의 대규모 집회에서 여행의 자유에 대한 동독 민중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처럼 빠르게 서유럽으로 여행이 실현된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모이러 부부의 이탈리아 여행은 동서독 사이에 긴박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동독 사람들의 내면에 이미 서독과 서방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리했다는 것으로 읽히며 이를 간파한 서독 여행사의 상술이 결합한 시대적 결과로 보인다.

제[레나테]는 에른스트가 동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1월 중순에 여행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는 겁니다 - 출발일 2월 16일이 아이들 방학 때이며 금요일이라면서 - 그리고 우리가 동독 여권을 가지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고 묻더군요. 난 아이들한테서 들은 대로 말해 줬죠. 뮌헨에 여행사가 우리에게 서독 증명서를 마련해 줄거라고요. 당연히 그건 가짜라고도 했어요. 늦어도 바로 그 순간에 에른스트 모이러와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증명사진 두 장이 그럼 그것 때문이었냐고 물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여권 사진 두 장, 생년월일, 신장과 눈동자 색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sup>5)</sup>

5) Ingo Schulze (2008): Simply Storys. Ein Roman aus der ostdeutschen Provinz, 7. Aufl. München, S. 15. 이후 본문에 S. 쪽수를 괄호에 표기. “Ich[Renate] hatte mich darauf verlassen, dass Ernst nicht mitmacht. [...] Aber er schwieg. Und Mitte Januar fragte er, ob wir nichts vorbereiten müssten - am 16. Februar, einem Freitag in den Schulferien, sollte es losgehen - und wie wir mit unseren DDR-Papieren über die italienische Grenze kämen und über die österreichische. Als ich ihm sagte, was ich von den Kindern wusste, dass wir von dem Reisebüro in München westdeutsche Ausweise erhalten würden, gefälschte wahrscheinlich, spätestens da dachte ich, jetzt ist Schluss, nicht mit Ernst Meurer. Aber er fragte nur, ob die beiden Passbilder, dafür gewesen seien. »Ja«, antwortete ich, »zwei Passbilder, Geburtsdatum, Größe und Augenfarbe - mehr brauchen die nicht.«”

이렇게 성사된 모이러 부부의 이탈리아 여행은 여느 때와 같이 여행지의 볼거리와 그곳의 소소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피렌체에서 아시시로 가는 도중 일행을 태운 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른스트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다. 아시시 방문이 취소되고 페루자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일행 중 이탈리아 예술에 해박한 지식을 보였던 인물이 갑자기 “몽유병 환자(Schlafwandler)”(S. 19)처럼 페루자 성당 담의 돌출부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는 “빨갱이 모이러([der] rot[e] Meurer)”(S. 21)”에 대한 연설을 시작했고 급기야 에른스트를 향해서 “초록색 점퍼를 입은 윗전 양반(Bonzen in dem grünen Anorak)”(S. 21)”이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여행 전 까자 이름으로 여권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모이러 부부만 알 수 있었다.

이런 소란을 피운 이는 에른스트와 예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쫓겨났던 디터 슈베르트(Dieter Schubert)라는 인물이다. 1978년 디터는 교사로 재직 중에 그의 반 학생이 과제 공책에 불세비즘을 비난하는 문구를 썼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때 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에른스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디터는 “인민경제 내에서 집행유예(Bewährung in der Volkswirtschaft)”(S. 232)라는 명목으로 갈탄 광산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이때 예술에 관한 책에 심취하여 힘든 삶을 버텼다. 3년 후 그는 갈탄 광산에서 벗어나 박물관에서 자신이 원하던 예술 관련 교육 일에 종사했으며 1990년 2월 이탈리아 여행 중에 우연히 에른스트를 마주한 상황이다. 디터는 여행 마지막 날 버스 고장 때문에 기대했던 아시시를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에른스트를 마주하고 예전의 울분까지 더해진 것이다. 결국 에른스트는 디터를 알아보고 레나테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디터는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는 과거 동독에서와 달리 에른스트와 디터의 뒤바뀐 입장이 앞으로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몇 달 후 디터가 동독 시절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지방신문에 보도되면서 에른스트는 디터를 박해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학교를 사직한다. 하지만 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당에서는 누구도 그의 입장을 옹호해 주거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에른스트는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에른스트는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에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결과적으로 에른스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미래의 삶마저 상실한 것이다. 이는 과거 동독에서 삶이 통일 이후 사회적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과거 동독체제에 순응하고 충실했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삶이 전환기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에른스트의 불행과 달리 디터는 동독에서 해고된 사유가 정치적 박해로 인정되어서 연금수령과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는 잉어 낚시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생을 마감한다.

그[베르트람]는 잔디에 누운 슈베르트 곁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마침내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누인 뒤 눈을 감기고 입을 닫을 수 있었다. 아랫입술에는 윗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사람, 제우스!” 베르트람이 말했다. 그는 한 손으로 그의 이마와 뺨을 연신 쓸었고 다른 쪽 손으로는 유리 의안을 덮었다(S. 165).<sup>6)</sup>

과거 동독에서 당원으로서 체제에 순응한 에른스트와 정치적으로 낙인찍혀서 시련을 겪었던 디터의 삶은 동독의 몰락과 함께 상반된 양상을 보이지만

6) “Lange kniete er[Bertram] neben Schbert im Gras. Es gelang ihm schließlich, dessen Kopf auf seinem Schoss zu betten, ihm das Auge und den Mund zu schließen. Auf der Unterlippe waren die Eindrücke der oberen Zahnreihe sichtbar. »Mensch, Zeus!« sagte Bertram. Mit einer Hand streichelte er ihm immer wieder Stim und Wange, mit der anderen bedeckte er das Glasauge.”

결과적으로 통일사회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된다.

과거 동독정권에서 충실한 당원이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책임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에 속하(trotz einer schuldhafte Vergangenheit im sozialistischen System, auch im vereinten Land zu den Erfolgreichen zu zählen)”(Bremer, 2002, 232)는 인물 역시 등장한다. 에른스트가 과거 동독에서 당원으로서 디터를 해고했던 일 때문에 동독의 몰락 이후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동안 과거 당의 관료였던 노이게bauer(Neugebauer)는 전환기 이후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입지를 새로이 굳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편의를 제공하면서 “동독체제에 대한 그의 책임(seine Teilhabe am DDR-System)”(ebd., 232)을 숨긴다.

물론 모이러가 노이게bauer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이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름 동안 지낼 “작은 집”을 주겠다고 노이게bauer의 제안에 모이러는 그가 여전히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무급의 집 관리인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사람들이 노이게bauer의 옛 지위에 대해서 낚시를 칠 것을 대비해서 그가 모이러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다(S. 80).<sup>7)</sup>

에른스트 모이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이게bauer가 제공한 별장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난을 감추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때 그를 물고 늘어지려 했다고 에른스트의 아내 레나테가 지인과 대화에서 밝힌다. 노이게bauer는 에른스트의 경우처럼 동독정권을 따른 과거의 행위 때문에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7) “Natürlich war Meurer nicht der einzige, der viel über Neugebauer wusste. Bisher jedoch hatten alle stillgehalten, selbst die Zeitungen. Mit dem Angebot des »Häuschens« für den Sommer war Meurer klargeworden, dass Neugebauer immer noch Angst hatte. Oder er brauchte einen unbezahlten Hausmeister. Oder er schickte ihn, Meurer, einfach vor, falls die Leute hier von seiner, Neugebauers alter Position Wind bekommen hatten.”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물질적 대가를 치르며 눈치를 살피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처럼 술체는 과거 동독에서 사회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전환기 이후 서로 다른 삶의 변화를 겪은 에른스트와 디터 그리고 노이게바우어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동독에서 과거의 삶과 독일통일이 빚어낸 사회적 변혁이 통일 이후 일상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개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술체는 사회적 변화와 일상의 삶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과거의 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전환기 이후 일상 속 삶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습득하고 적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에른스트 처럼 과거와 연결되어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거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처럼 “과거의 상흔으로 고통받는 인물”(류신, 2007, 148)을 조명한다. 또한 술체는 디터처럼 전환기 이후 고통받은 과거를 보상받고 안정된 삶을 얻었을 지라도 갑자기 죽음에 이르거나 노이게바우어처럼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음에도 과거의 행적을 숨기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통일사회에서 무엇이 성공이며 실패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음을 제시한다. 즉 술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동독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동독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사회적 변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 이후 그들의 삶은 상실과 불안 속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과거의 기억과 소외된 개인

잉고 술체는 『심플 스토리』에서 동독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 변혁이 일상 속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었는지 재구성했다. 술체가 전환기 이후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해서 서술한 『심플 스토리』와 달리 이용준은 2009년 출간된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서 현재 남한사회에 대

한 비판적 관점과 작가적 상상력으로 가상의 통일사회를 서술한다. 이런 그의 소설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소개되면서 최근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 의심, 심지어 반대(indifference, doubt, even opposition)”한다고 전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응준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두운 도전(black challenge)”(Branigan, 2013)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응준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낭만적 통일주의는 허망한 꿈”(이응준, 2021)이라는 말과 함께 그의 소설은 한반도 통일을 낭만적이고 모호한 바람이 아닌 통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어두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며 미래 한반도 통일을 성찰적으로 대비하는 일환이라고 밝혔다.

내가 통일 대한민국을 소설로 썼던 까닭은 남한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낫설게 성찰해봄으로써 그것들이 통일 이후 어떻게 변이 확대돼 갖가지 증오와 폭력으로 창궐하게 될 것인지를 질문하고 싶어서였다. 통일은 대박이니 쪽박이니 하는 서툰 관념이 아니라, 희망보다 난해하고 절망보다 또렷한 혼돈일 것이라는 현상을 제시하고 싶어서였다. 뭘든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극복하고 치유하여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응준, 2021).

이응준의 소설은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라는 공식적이고 승인된 통치조직의 “이면에 잠재해 있는 음침하고 어두운,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스펙트럼”(권희철, 2009, 2)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작가는 이질적인 남북의 두 체제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제도와 규범을 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서술한다.

『국가의 사생활』에서 북한 사람들은 통일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소외된 개인으로 불법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사회 공동체의 “변방으로 밀려나 사생활”(이성희, 2014, 398)로 치부되어 있다. 이들은 통일 직후 북한

에서 전역당하고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속하지 않는 도적 떼가 되어버린 전직 인민군을 피해서 “남조선에 피난”<sup>8)</sup>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남으로 내려왔지만 도시 빈민층이 되었고 “통일 정부에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일명 통일급식소”(N. 76)에 긴 줄로 늘어서 삶을 연명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며 과거의 이미지와 상징체계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거리에서나 논에서나 인민들은 김 주석의 초상이 그려진 배지를 달고 그에 관한 노래를 들으며 고된 하루를 보낸 뒤 귀가해서는 벽에 걸린 김 주석 부자의 초상화 한 쌍을 만났다. [...] 이러한 이미지들과 상징체계들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기라고 판명이 난다 한들 이전과 동일한 신호가 오면 어쨌든 반응한다. 조건반사는 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반사는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확장하고 심오해진다. [...] 세뇌된 순종은 쉽사리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어느덧 4월 15일 태양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 리강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의 이북 인민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제히 경건해질 것이었다(N. 120f).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이 다가오면 경건해질 정도로 과거의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심지어 과거 북한군 정에 부대원과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와 의사 출신으로 구성된 폭력조직 대동강에서는 생활총화와 같은 과거의 세뇌된 순종적 행위를 정기적으로 지속했다. 이처럼 통일 이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고 불안한 현재의 처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습관화된 과거의 기억에 매달렸다.

또한 과거 북한의 최고 엘리트에 속했던 교수와 의사조차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폭력조직의 일원이 된 소설 속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점차 “웃어넘기지 못할 능욕이란 사치에 불과하다”(N. 28)는 것을 깨닫는다.

8) 이응준 (2012):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2쪽. 이후 본문에 N. 쪽수를 괄호에 표기.

이와 관련해서 과거 북한에서 극소수의 최상류층에 속했던 북한의 아나운서가 통일 이후 잠실야구장 청소부로 일하던 중 선수 탈의실에서 목을 때 자살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옹변하듯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아나운서”(N. 29) 출신의 죽음에 불과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사실 북한에서 남한의 아나운서에 해당하는 방송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과 사상성이 완벽해야 했고 당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들을 통과한 후 최고 권력자의 비준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의 총애와 온갖 편의를 누렸던 북한의 방송원이 통일 이후 청소부 생활을 하다가 이를 비판해서 유서 한 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비극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남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나운서라는 존재를 남한의 그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여긴 탓에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절망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대중음악가 서태지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지방 변두리 나이트 클럽 화장실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면 이남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N. 28f)

소설 속 가상의 통일 대한민국은 이응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의 남한 사회를 근간으로 북한이 흡수 통합된 상황이다. 『심플 스토리』에 나타난 통일 사회에서 동독 사람들이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뜻밖의 불행을 경험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의 어려움을 보였다면 『국가의 사생활』에서 북한 사람들은 과거 북한에서 굳게 믿었던 사회주의가 “뽕”(N. 81)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끼니를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식소를 전전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 북한 사람들 역시 『심플 스토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독 사람들처럼 통일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상실과 불안 속에서 과거의 생활습관과 기억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가의 사생활』에서 과거 북한에서 최상류층에 속했던 사람들조차 통일 이후 현실에 대한 모멸감과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심플 스토리』에서 동독시절 당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린 인물의 삶이 통일사회에서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대비될 수 있다. 이렇듯 소설 속 독일의 통일사회와 가상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통해서 인물들의 과거의 삶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달라질 삶의 변화를 미루어 성찰해 볼 수 있어 보인다.

### III. 물질적 가치의 지배와 삶의 위기

#### 1. 돈의 위력과 불안한 삶

슐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독지역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과 일상의 삶을 연결하여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적응과 위기 그리고 이들 사이에 발생한 경쟁상황에 주목한다. 작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부동산 중계업자 해리 넬슨(Harry Nelson)과 디터의 딸 콘니 슈베르트(Conni Schubert)를 중심으로 독일통일 이전 이미 서독의 자본이 동독으로 유입되는 과정과 동독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과 돈을 대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슐체는 1990년 5월 튀링엔 주의 소도시 알텐부르크에 서독의 자본이 엄습해 오는 과정을 콘니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전한다. 동독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호텔 식당에서 일하는 열아홉 살 콘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호텔 방문자들을 상대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온통 서독에서 온 해리를 향해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해리는 알텐부르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도시 진입로 주변의 건축부지를 사들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니는 해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거나 자신에 대한 그의 감정을 알 수 없었다. 해리는 알텐부르크에서 목적인 일을 거의 마칠 무렵 콘니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와

호감을 표시하고 둘은 함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해리가 갑자기 그녀를 쓰러뜨리고 겁탈한다. 해리는 사업상 신사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그의 욕망은 알텐부르크에서 필요한 주택과 건축 부지를 손에 넣는 것이었고 자신을 향한 콘니의 호감을 눈치채고 그녀를 육체적으로 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넬슨이라는 그의 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8세기 영국의 식민지 쟁탈전의 선봉에 선 넬슨 제독처럼 그는 서독의 우월한 자본의 상징과 같이 알텐부르크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 순진한 콘니를 범하고 죄책감 없이 서독으로 되돌아간 것이다(김용민, 2008, 264f 참조). 이에 반해 콘니는 자신을 단지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음 날 해리를 다시 볼 생각과 미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요즘 귀가하는 길에서처럼 그를 내일 다시 보려면 잠을 자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미래의 남편이며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나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를 보호해 줄 남편 - 사소한 다툼으로 복수의 마음을 가질지라도(S. 29).<sup>9)</sup>

해리가 떠난 후 본격적으로 서독의 거대자본이 유입되어 다른 동독의 도시들처럼 알텐부르크의 호텔과 식당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콘니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그녀는 뤼벡을 거쳐 영국 여객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더 이상 해리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 사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흡수통합을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서독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1989년 가을 이후 동독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서독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당연히 그들처럼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9) "Ich dachte, wie oft in letzter Zeit auf dem Heimweg, dass ich ja nur schlafen muss, um ihn morgen wiederzusehen, meinen zukünftigen Mann, den Vater meiner vielen Kinder, der mit niemanden vergleichbar war, der mir die Welt zeigen und alles verstehen, der mich beschützen - und rächen würde."

빠져있었다. 하지만 1990년 7월 화폐통합의 시행과 함께 동서독 화폐가 일대일 교환되면서 서독에 비해서 기술과 품질이 떨어진 대부분의 동독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서독으로 합병되었다. 그 결과 동독 지역에 기반한 경제활동은 구조조정 되었고 동독 사람들은 대량 실업사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찾아서 서독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통일 초기부터 서독의 자본은 가차 없이 동독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고 동독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행복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술체는 서독 자본을 상징하는 해리와 동화와 같은 환상 속에 있는 순진한 콘니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빗대어서 서술함으로써 전환기 이후 동독 사람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과 돈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게다가 동독 사회를 점령해 간 서독의 자본은 동독 사람들이 과거에 이룬 성과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까지 앗아간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는 동독의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예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조교로 일하고 있는 마르틴 모이러(Martin Meurer)가 전환기 이후 경험한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 조교직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마르틴]가 하루아침에 수입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안드레아는 이미 회계업무를 위한 교육을 마친 상태였고 아들 티노가 오전동안 유치원에 가 있을 때 프랑스어와 타자를 배웠다. 우리는 주거보조금을 신청했고 담뱃값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안드레아의 운전면허 학원 등록을 취소했다. 나는 라이프치히에 얻어 놓은 방을 내놓았고 장학금, 여행안내인 자리, 프로젝트, 광고 관련 영업직을 알아보았으며 나중에는 매달 실수령액 1800마르크를 보장한다는 자연석 보관업 회사 VILT의 영업직에 지원했다(S. 42).<sup>10)</sup>

10) “Als meine Assistentenstelle an der Leipziger Uni nicht verlängert wurde und ich[Martin]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ohne Einkommen war, hatte Andrea schon eine Umschulung zur Buchhalterin hinter sich und lernte vormittags, wenn Tino im Kindergarten war, Französisch und Maschineschreiben. Wir beantragten Wohngeld, nahmen uns vor, weniger zu rauchen,

동독 시절 마르틴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월급을 받는 조교였기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전환기 이후 그는 지금껏 쌓아온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서독에서 온 새로운 교수와 연구자들에게 밀려나 조교 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전공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름의 안정을 찾은 마르틴 부부는 과거 동독에서처럼 가족 휴가를 보낸다. 하지만 그가 휴가지에서 속도위반으로 벌금과 면허정지 통보를 받으며 다시금 위기에 봉착한다. 마르틴은 벌금을 마련해야 했고 여러 지역을 오가야 하는 직업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틴의 아내 안드레아는 아이를 돌보고 장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마르틴은 생계를 위해서 아들을 처제에게 맡기고 홀로 생활하며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맞는다. 과거 동독에서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에 따라서 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었고 제한된 범위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나름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들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새로운 사회에서 삶의 질과 조건은 수입과 직결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질서에 미숙한 삶의 태도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훨씬 더 위축되거나 수동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이후 마르틴이 경험한 불행과 위기는 통일사회에서 동독 사람들이 처한 일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르틴과 같은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의 대학 동창들 역시 전환기 이후 새로운 사회의 적응에 힘겨워하며 대부분 실업을 경험했고 때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이혼과 같은 불행을 겪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삶의

---

und zogen Andreas Anmeldung bei der Fahrschule zurück. Ich gab mein Zimmer in Leipzig auf, bewarb mich um Stipendien, Reiseleiterstellen, Projektarbeit, Anzeigenakquisition und schließlich bei VILT Natursteinkonservierung GmbH & Co. KG um einen Außendienstjob mit garantierten Tausendachthundert netto.”



위기는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동독 사람들 앞에 놓인 시대적인 전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슐체의 소설에서 이와 같은 일상 속 삶의 위기는 동독 출신 인물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들의 불행과 실패는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동독 사람들은 실업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동시에 이들 사이에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었다. 예를 들어 베이어는 가구회사 면접 대기실에서 자신과 함께 지원한 쾰르너라는 인물에 대한 분명한 설명도 없이 회사 임원의 비서에게 쾰르너와 과거 동독의 자유독일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의 상징인 파란색 셔츠를 엮어서 그를 모함한다.

“쾰르너가 뭘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그가 1989년 12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에드가 쾰르너!” [...] “신문 안 보셨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놈을 고용하다니... 그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이에요! 똑똑하고 매수하기 쉬운 그런 놈을!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파란 셔츠가 떠올라요!(S. 135)”<sup>11)</sup>

이처럼 전환기 이후 새로운 사회에서 동독 사람들은 서로가 사회적인 경쟁상대가 되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함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동독 시절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고 동독의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에서 나름의 경제적인 입지를 마련한 이들의 삶 역시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 주간지 창립자 베이어는 자신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 대신에 지불능력이 있는 광고주를 찾아다니는 일에 몰입한다. 택시 사업자 라파엘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거리 운행 손님을 놓친 택시 기사는 울부짖음으로 분노를 표현할 정도였다.

11) “»Wissen Sie, was Körner war, was der bis November neunundachtzig war, Edgar Körner?« [...] »Haben Sie nie Zeitung gelesen, früher? Wer den einstellt ... Man weiß doch, wer das ist! Intelligent und käuflich! Ich kenne den nur im Blauhernd.«”

이렇듯 소설의 거의 모든 장에서 돈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며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과 일자리와 집, EC 현금카드 그리고 새로운 법률과 서식을 배우는 일(Hauptsache, Geld und Arbeit und Wohnung und EC-Karte und dass man sich auskennt mit Gesetzen und Formularen)”(S. 235)이었다. 즉 통일사회에서 물질적 가치는 인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며 인간관계의 형성과 변화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자본과 경쟁에 기반한 시장 경제 시스템은 몰락한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를 빠르게 대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물질적 욕망과 혼돈의 세상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서 역시 돈은 통일사회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독일통일 이전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편입만 하면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의 사생활』에서 북한 사람들 또한 남쪽에 이미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서면 자신들의 삶 역시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시 말해 남한사회에 편입되면 곧바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구조, 노동조건, 임금 등이 남한의 경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전태국, 2007, 216 참조). 하지만 술체의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서독의 자본을 상징하는 부동산업자 해리가 가장 빠르게 동독에 등장한 것처럼 통일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황폐한 땅들을 사재기하겠다”는 남한의 기업과 부자들이 북한에 몰려들었고, 심지어 1950년 “한국전쟁 이전의 부동산 소유권”(N. 74)을 주장하는 소송까지 잇따랐다. 또한 남한의 자본은 과거 북한에서 민족의 성지로 지정되어 주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묘향산을 관광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개발이익에 눈이 먼 남한의 자본가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이를 바라보던 북한 사람들의 불만은 근대 이전 조선시대 신분제 질서의 토지제

도부터 일제 강점기 이후 남과 북에 들어선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토지 소유와 분배까지 소환한다.

“[...] 어쨌거나 남조선식 자본주의는 부동산이야. 조선시대 양반 지주의 착취 때부터 땅에 한이 맺혀서 그래. 그 반동적 체질을 뿌리 뽑은 게 우리 공화국이었는데. 이 악종들이 휴전선 위로 기어 올라가서 노는 꼴들을 좀 봐라. 나중엔 묘향산 꼭대기에도 교회 짓고 대동강 물도 자기들 거라고 서류를 들이밀 놈들이야. 내가 보기에 이 혼란도 거의 다 됐어. 이놈의 나라가 무슨 사단이 나도 분명히 난다. 얼마 남지 않았단 소린데(N. 75).”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토지와 관련해서 비난하고 비아냥 거렸지만 오히려 남한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라고 모욕”(N. 100)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과거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북한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존중받지 못했으며 자기 욕망의 표현 방법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들은 자유에 대한 무지와 자아가 소외된 채로 살았으며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 또 거기에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인민들 각자의 무지함까지”(N. 99) 더해진 상태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한의 “사회주의형 인간”(N. 99)들은 시장과 화폐 그리고 경쟁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평등만 앞세운다고 비난받는다.

이북 사람들은 일일이 시키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으며 건성건성 시간을 때우기가 일쑤였고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데 고집만 썼다. 기업가들은 통일 전에도 탈북자가 하나될 수수료 뒤 취직하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제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사회주의 특유의 평등 의식을 발동해 화이트칼라와의 임금 격차에 울화통을 터뜨리고 직장을 뛰쳐나갔던 것 등등을 회상하면서 끝끝 혀를 찼다(N. 100).

이러한 말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거만하고 인색하다”(N. 100)고 되받아쳤지만 통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남한 사람들은 이미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그들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살펴볼 뿐이었다(고인환, 2012, 151f 참조). 이들은 통일 대한민국에서 2등 국민이거나 주민등록조차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령에 불과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점차 이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심지어 이들은 원인 모를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식인귀’와 같은 유언비어의 주인공이 되었다.

점입가경. 굉장한 유언비어들도 횡횡했다. 그중 대표 격이 식인귀가 출몰한다는 거였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가 고파 인육을 입에 댔던 한 사내가 통일 뒤 서울에 내려와서도 그 맛을 못 잊어 이남 사람들만 골라 살해해 심장만 파먹고 돌아다닌다는 거였다. 공공롭게도 원인 모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기는 했지만 심장이 없는 피살체가 발견된 적은 없었으니, 일단 이것은 이북 사람들을 향한 이남 사람들의 혐오를 충분히 입증하는 일례로서만 유효하였다(N. 77).

통일 대한민국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남과 북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었으며 국가의 공권력을 벗어나 “날 것”(강희철, 2009, 350)의 세상이 펼쳐진 곳이다. 통일사회의 구성원들은 국가의 사법적 제도적 영역에서 의무와 권리를 갖춘 시민으로서 삶이 아닌 “2011년 5월 9일 오후 4시경 한반도에서 난데 없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튀어나온 수천의 마귀들”(N. 22)처럼 청천벽력 같이 찾아든 남북통일 앞에서 불법적이고 탐욕스러운 일탈행위로 가득한 국가의 사적(私的)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통일 대한민국의 모델하우스”(N. 26) 광복빌딩이다. 이곳은 온갖 욕망과 잔인한 폭력 그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폭력조직 ‘대동강’의 본거지로서 조직이 운영하는 유령회사와 고급룸살롱 ‘은좌’ 그리고 지하에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비밀공간까지 갖추어져 있다.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광복빌딩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은좌가, 지상 4층부터 6층까지는 대동강이 공작한 유령회사가 사용하고 있었다. 지옥의 심장부는 지하 2층과 지하 3층이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비밀한 공간을 대동강들은 자기들끼리 땅굴이라고 불렀다. 지하 2층은 1호 땅굴, 지하 3층은 2호 땅굴. 통일 대한민국 이남 상류층 남자들이 이북 여성 접대부들을 만끽하고 당대 최고급 룸살롱의 바로 밑에서 희대미문의 조선 인민군 출신 폭력조직이 어느 스니프 필름에도 뒤지지 않는 리얼 잔혹극을 관객 없이 자주 공연하고 있었다. 1호 땅굴과 2호 땅굴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은 철근콘크리트 벽의 두께를 뚫지 못하거나 설령 새어 나간다 하더라도 호화로운 술판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온갖 소음들 속에 파묻혀 버렸다(N. 25f).

이웅준은 통일 대한민국을 압축해 놓은 듯한 광복빌딩에서 폭력조직 대동강의 우두머리 오남철과 2인자 리강의 삶을 통해서 혼돈 속의 통일사회를 서술한다. 오남철은 분단시절 북한의 요덕수용소를 탈출해 신분을 숨기고 살다가 통일 후 서울에 들어와 과거 북한의 인민군 특수 정예 부대원과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그리고 의사처럼 “그들의 경력이 통일 조국에서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N. 27)린 북한 출신 엘리트를 규합해 폭력조직 ‘대동강’을 조직했고 우두머리가 된 인물이다. 그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대포 인간”(N. 250)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수하 리강의 출신과 배경을 이용해서 폭력조직을 운영한다. 오남철은 개고기와 포도주를 함께 즐기며 동시에 고전음악을 듣는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 과거 북한에서 굶주림에 시달릴 때 개고기는 그에게 영양공급원이었으며 현재에는 불행한 과거를 미화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고 포도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즐기 시작한 풍요로움이며 과거에 접할 수 없었던 고전음악은 새롭게 접한 서방세계의 여유를 상징한다. 이러한 그의 복합적인 행동양식은 소비 자본주의적 일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 이질적이며 심지어 분열증적 내면을 나타낸다(이

성희, 2014, 396 참조). 이처럼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오남철과 달리 폭력조직 대동강의 2인자 리강은 일제 강점기 독립 투사이며 북한의 혁명 원로였던 이장곤의 손자이고 북한 인민군 정예요원 출신이다. 통일 이후 그는 신분이 없는 오남철을 대신해 대동강에서 행한 모든 결정의 공식적인 책임자로서 단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통일 대한민국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이미 죽었는데도 살아가고 있는”(N. 49) 존재라고 말하며 “자부심의 빛이 꺼져버린 허무의 눈”(N. 85)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현재 통일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 북한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채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는 잠들기 위해서 신중 환각제 “레드아이”(N. 49)를 복용한다. 리강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 내에서 그의 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통일 대한민국에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폭력조직 ‘대동강’에서 “차갑고 단순한 폭력기계”(권희철, 2009, 2)로서 살아가고 있다.

서로 다른 삶의 이력을 가진 두 인물은 통일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자와 이를 막아서는 자로 마주한다. 비극적인 과거의 삶과 분열증적 행동 양식을 가진 오남철은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진 북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과거 북한 인민군 생화학 부대 장교이며 현재 대동강 단원인 림병모를 이용해서 생화학 무기를 확보한 그는 가난한 북한 출신 사람들을 위해 설치된 “통일급식소”(N. 248)에 생화학 물질로 오염된 포장 식품을 보내 서울 한복판에서 페스트를 퍼뜨리려고 한다. 그는 이와 같은 테러를 통해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닮으며 중요하게 만들고 폭력이 난무하는 소요 사태로 번지길 기대하고 있다.

“페스트는 신이 내리는 역병이거든. 페스트가 한번 쏘고 지나가면 사회 구조가 바뀌고 인간들이 좀 겸손해지지. 인구도 확 줄고, 지금 우리에게겐 참

으로 요긴한 조치야. 멋지지 않나? 21세기 통일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페스트가 창궐한다. 과연 미학적이야. 이북 사람들은 자기들이 희생당했다며 폭동을 일으키고 이남 사람들은 저놈들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증오하겠지(N. 248)”.

오남철은 북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남조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고”(N. 207) 언급하면서 이미 몰락한 전체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곳을 떠나 난민처럼 떠도는 북한 출신 동포들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동안 쌓인 모멸감과 원망을 쏟아내며 광기 어린 인정투쟁을 계획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스스로 저항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동등한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권리를 얻을 수 있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계획한 테러는 “인정의 관점(Anerkennungsaspekte)”(Pollack, 2000, 17)<sup>12)</sup>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구성원과 합의되지 않은 불법과 폭력적인 방식은 그의 목적과 의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오남철의 빼돌려진 욕망을 알아차린 리강은 북한 동포들을 생화학 무기로 학살하고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서로를 증오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통일 이후 서울 한복판에서 냉소적이고 허무한 삶 속에 머물던 자신을 끌어내 오남철의 테러를 막아선다.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 나타난 가상의 통일 대한민국에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남과 북 사이에

12) 1990년대 초부터 서독 언론과 기관들은 동독의 과거에 대해서 주제화할 때 동독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과거 동독의 통치체제와 죄과에 집중했다. 그로 인해서 동독 사람들이 살아온 삶은 오해와 무시 속에서 부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동독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역사와 개인적인 전기 그리고 앞으로 삶의 계획이 서독에서 비난되고 무가치해지는 것을 탄식했다(Ahbe 2004, 16 참조). 이웅준의 소설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인정의 관점에서 독일통일 직후 동독 사람들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은 점차 첨예화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통일사회는 남한사회에 이미 잠재해 있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담고 있으며 북한과 통합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 땅 투기하던 남한의 자본가들이 통일 후 투기지역을 북한으로 확장한 것이며 무능력하고 부패한 위정자들이 통일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만드는 속물근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영위한다.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소설 속 인물은 이를 위한 해결책이 테러라는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암울한 통일 대한민국을 볼 때 작가가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통일을 회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이웅준이 밝힌 바와 같이 남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현실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 나타난 금전적 욕망과 갈등과 혼돈의 상황을 탐색하는 것은 현재의 분단상황을 성찰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탈분단 문학의 시도로 볼 수 있다.

#### IV. 희망의 가능성

술체의 『심플 스토리』에서 통일 이후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의 삶이 순탄치 않으며 거듭된 실패로 힘겨워 보이지만 소설은 마지막 장에서 에른스트 모이러의 아들 마르틴과 디터 슈베르트의 옛 애인 예니(Jenny)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얻은 새로운 일자리를 대하는 태도에 주목하며 희망적으로 마무리된다. 무엇보다 마르틴과 예니는 불미스러운 일이나 시련 앞에서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피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틴은 미술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통일 이후 대학의 일자리를 잃고 학업도 포기한 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아내의 사망과 아들과 이별을 경험했다. 동독시절 간호학교를 다녔던 예니는 통일 이후 과거 동독에 대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적 속물근성과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속된 실패와 좌절에도 생의 의지를 놓지 않으며 부단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가진 동독 출신 두 남녀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전국 체인망을 가진 생선 및 해산물 식당 ‘북해(Nordsee)’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다. 이들은 일당을 받고 식당 광고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일을 맡는다. 우선 지점장이 알려주는 식당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잠수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 “북해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Wie komme ich zur Nordsee)?”, “북해가 어디인지 아세요?(Wissen Sie, wo die Nordsee ist?)”(S. 307)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변 행인들에게 식당 광고지를 나눠준다. 그런데 마르틴이 신고 있던 오리발이 행인의 여자친구 발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두들겨 맞는다. 그 행인은 마르틴을 폭행하고 자리를 떠났고 예니는 식당 지점장 케른델에게 마르틴이 당한 불의의 사고를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거듭 말한다. 하지만 마르틴은 예니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며 전환기 이후 그에게 닥친 시련 앞에서 줄곧 실망하고 좌절하며 사회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모습과 달리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우리 이제 케른델 씨에게 가요.” [...] 마르틴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니다. “가요. 우린 가야 해요.” 내[예니]가 말합니다. [...] “나는 이제 더 이상 케른델에게 가지 않아요” 마르틴이 말합니다. [...]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 내가 묻습니다. “떠날 거예요. 가능한 한 멀리.” 그가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침을 뱉고, 심지어 스노클을 입에 물고서 물안경 밴드에 꼭 붙들어 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맵니다. 나 역시 그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 나갑니다. [...] 우리는 물구덩이를 철벽거리며 지나갑니다. [...]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고 믿을 지경입니다. 물안경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서로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잡고 나아 갑니다(S. 313).<sup>13)</sup>

13) “[...] Wir gehen jetzt zu Kerndel.« [...] Martin schüttelt den Kopf. »Doch«, sage ich[Jenny], »wir müssen.« [...] »Ich geh nicht mehr zu Kerndel«, sagt Martin. [...] »Wohin den dann?«

이처럼 소설은 예니가 진심으로 마르틴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람들 사이를 뛰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마르틴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폭행당하는 장면만 살펴보면 통일 이후 그의 불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르틴은 불의의 사고에 좌절하지 않았으며 어리지만 새로운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 예니와 “발걸음을 맞춰(Gleichschritt)”(S. 314)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이들이 통일 이후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회에서 삶의 기회를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른스트 모이러의 아들 마르틴과 디터 슈베르트의 옛 애인 예니의 새로운 출발은 과거 동독시절 에른스트와 디터 사이의 악연과 통일 이후에 뒤바뀐 처지와 이어진 불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류신, 2007, 154 참조). 다시 말해 마르틴과 예니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통일 이후 동독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과오에 대한 화해와 용서뿐만 아니라 통일사회에서 동독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 『심플 스토리』의 마무리처럼 『국가의 사생활』에서도 불안과 혼돈의 사회 속에서 희망을 전한다. 리강은 오남철의 테러 계획을 알고 이를 막으면서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 이는 리강이 이전의 무기력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리며 그 속뜻을 헤아리면서 시작된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죽음을 앞둔 리강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변화와 관련된 ‘장자’의 구절을 이야기한다.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였으며 북한의 혁명 원로인 리강의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 손자에게 남긴 이야기를 어린 리강은

---

frage ich. »Weg«, sagt er, »möglichst weit.« Er spuckt wieder aus, nimmt sogar den Schnorchel in den Mund und klemmt ihn unter dem Brillenband fest. Zum Schloss hängt er sich die Tasche um. Ich mache es wie er. Dann laufen wir los. [...] Wir platschen durch die Pfützen. [...] Man könnte sogar glauben, die Leute bilden ein Spalier für uns. Wir halten uns an der Hand, weil die Brille das Blickfeld einengt und man nie weiß, ob der andere wirklich noch neben einem geht.”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의 유언을 간직한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슬픔이 견디기 힘들어 계속해서 되뇌었다. 작은 알은 거대한 물고기가 되고 거대한 물고기는 거대한 새가 되어 날아간다고 할아버지는 정말 이 이야기가 우월한 손자를 달래줄 거라 믿었던 것일까? 어쨌거나 보람은 있었다. 나는 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나는 어렸다. 그리고 아직 살인자가 아니었다(N. 10).

리강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유언은 작은 미물이 시련과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리강은 혼란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에서 오남철의 무모하고 허망한 테러 계획을 마주했을 때 이를 떠올린다. 오남철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폭동을 유도해서 사회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민적 소속감과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저항이 아닌 빼돌어진 개인의 광기이며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벌이는 학살에 불과했다. 이에 리강은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는 변화의 모색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증오를 남길 것을 직감하고 오남철의 테러를 저지한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지극히 사소한 존재”에 불과했던 리강의 삶이 오남철의 테러 앞에서 “강하고 아름다워진다”(N. 212)는 것이다.

작은 알이 거대한 물고기가 됐다가 또 거대한 새가 되는 변화. 거대한 새란 자기를 초월해 위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한 자다. [...] 거대한 새는 해일과 폭풍을 타고 날아오르는 법이거든.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와 거대한 새는 길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것들도 본래는 하나의 알이었다는 거지(N. 212).

리강은 “인간의 길에서 아득히 멀어지고 마는” 암울한 통일사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의 알”에 불과했던 자신의 삶을 “해일과 폭풍을 박차고 날아오

르는 변화의 장관”(N. 213)으로 펼쳐내어 변화를 통한 치유를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7년 후 2023년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외롭고 힘겹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N. 255)의 의미를 알려준 어릴 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상기하며 “인파 속을 다시 걷기”(N. 257)로 다짐한다.

## V. 결론

술체와 이응준의 문학작품에서 이질적인 두 사회가 통합된 후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 영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펴보았다. 술체의 서술은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사실에 기반했고 이응준은 가상의 통일사회를 상상하면서 현재 남한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반영했다. 이처럼 술체가 서술한 실제적인 통일사회와 남한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가상의 통일사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미래 한반도 통일을 현실적이며 성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진다.

동독 출신 작가 잉고 술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통일 직후 1990년대 옛 동독지역의 소도시 알텐부르크를 배경으로 단순하고 사소한 소박함 속에서 통일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서술한다. 특히 작가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으로 통일사회에서 벌어진 과거청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어진 사회문제 그리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실존적인 삶의 과정이 묘사된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곤혹스러운 상황 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놓인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의 위력을 실감하고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가족의 해체, 실업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초래한 심리적인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은 『국가의 사생활』에 나타난 가상의 통일 대한민국에서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

며, 특히 여전히 내면적으로 분단된 모습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보다 더 지독한 지역감정”(N. 77)이 추가된 갈등과 혼돈의 사회로 여겨진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사회문화적 갈등은 북한 출신 사람들을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소설 속 북한 사람들은 통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화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 채 정서적으로 과거의 기억과 습관에 머물며 현재의 삶에서 상실감과 불안 속에서 소외된 개인으로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실업과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등 국민이라는 설움 속에서 실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온전히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 주변인으로서 방황한다. 이렇듯 소설 속에 나타난 통일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것 같지 않으며 “내면적으로 여전히 분단 상태”(N. 77)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분열은 이미 독일통일 직후에도 관찰되었으며 통일사회에서 독일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견과 가치 행위에 부정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문화적인 갈등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신뢰를 위협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Misselwitz, 1999, 26 참조). 이런 측면에서 독일통일 33년이 지났지만 독일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결속(der starke gesellschaftliche Zusammenhalt)”(BMWi, 2021, 15)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합의 걸림돌을 찾아내 해결하는 모습은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본보기로 여겨진다.

**[주제어]** 독일통일, 한반도 통일, 통일 이후 삶의 변화, 잉고 술체, 이응준

[참고문헌]

1차 문헌

- 이응준 (2012).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Schulze, I. (1998). Simple Storys. Ein Roman aus der ostdeutschen Provinz. 노선정 옮김  
(2009). 심플 스토리. 서울: 민음사.  
Schulze, I. (2008). Simple Storys. Ein Roman aus der ostdeutschen Provinz. 7. Aufl.  
München.

2차 문헌

- 강희철 (2009). 웰컴 투 통일조국 -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민음사, 2009). 오늘의 문예비평.  
74, 347-358.  
고인환 (2012). 탈북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양상 연구 -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과 강희  
철의 유명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9, 141-169.  
권희철 (2009). 서평, 이상한 나라의 리강 소좌 -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문화동네, 16(3),  
1-4.  
김용민 (2008). 독일통일과 문학. 창비.  
류신 (2007). ‘북해’로 가는 길 - 잉고 술체의 소설 『심플 스토리』에 나타난 통일 이후 동독  
인의 삶의 편력. 독일언어문학, 37, 143-161.  
이성희 (2014). 탈북디아스포라로 살펴본 국가 의미의 재고 - 김영하의 빛의 제국과 이응준  
의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3, 379-403.  
이응준 (2021. 8. 18): 이응준의 시선, ‘완전한 이별’과의 대화. 한경 오피니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1827271>  
이응준 (2023. 1. 26): 이응준의 시선, 한반도, 뒤늦게 도착할 20세기 마지막 대실현. 한경 오피  
니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12657261>  
이응준 (2023. 3. 23): 이응준의 시선, 비정상국 한국 정치의 코미디. 한경 오피니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32399141>  
전태국 (2007).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 변화를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41(6), 204-246.  
황승환 (2010). 희망의 편린을 찾아서 - 잉고 술체의 『심플 스토리』에 나타난 동독주민의  
삶과 전망. 카프카 연구, 23, 179-201.  
Ahbe, T. (2004) Die Konstruktion der Ostdeutschen. Diskursive Spannungen, Sterotype  
und Identitäten seit 1989.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1-42.

-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Hrsg.)(2021).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Berlin.
- Böttinger, H. (1998). Kamerablick der Sprache. Ingo Schulzes 『Simple Storys』: ein virtuoser Ver- und Enthüllungs-Roman. In: Frankfurter Rundschau, Zeit und Bild 14.03.1998.
- Branigan, T. (2013. 5. 27). Korea unification: dreams of unity fade into past for young South Koreans. The Guardian.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may/27/south-north-korea-unification>
- Bremer, U. (2002). Versionen der Wende. Osnabrück.
- Höbel, W. (2005). Der ganze normale Wahnsinn. In: Der Spiegel 41/2005.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0). Annual Report 1999. Washington D.C.
- Misselwitz, H. (1999). Annäherung durch Wandel. Für eine neue Sicht auf die innere Einheit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7-8.
- Pollack, D. (2000). Wirtschaftlicher, sozialer und mentaler Wandel in Ostdeutschland. Eine Bilanz nach zehn Jahre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0/2000.
- Schneider, W. (2005). Türmer in der Wendezeit.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26. April 2005, S. 35.

## [국문초록]

이 글은 잉고 술체의 소설 『심플 스토리』와 이응준의 소설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며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인물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삶을 위한 생의 의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독일통일의 과정과 이후 사회적 변화를 실제의 삶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동독 출신 작가 잉고 술체는 소설 『심플 스토리』에서 독일통일 직후 1990년대 옛 동독 지역의 알텐부르크를 배경으로 단순하고 사소한 소도시의 소박함 속에서 통일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다양한 서술관점과 대화체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술체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통일사회에서 벌어진 과거청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어진 다양한 사회문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서 술체는 통일 이후 사회적 변혁 속에서 동독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 실업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초래한 상실과 불안감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구체화한다.

술체가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해서 서술한 『심플 스토리』와 달리 남한의 작가 이응준은 소설 『국가의 사생활』에서 남한사회의 비판적 관점과 작가의 상상력으로 가상의 통일사회를 이야기한다. 소설에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남과 북 사이에 갈등은 점차 첨예화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통일사회는 남한사회에 이미 잠재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담고 있으며 북한과 통합으로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 이는 작가가 남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현실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처럼 통일사회를 서술한 독일과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질적인 두 사회가 하나가 되는 통합의 과정과 하나로 통합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와 의미를 세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Life after Reunification in Ingo Schulze's *Simple Stories* and Eung-jun Lee's *Private Life of the Nation*

Jung, Youngho (Kwangwoo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 the topic of life after reunification in terms of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in the form of an analysis of Ingo Schulze's novel *Simple Stories*(1998) and Eung-jun Lee's *Private Life of the Nation*(2009).

In his novel *Simple Stories*, Schulze deals with the change in mentality in GDR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reunification and the challenges of a new everyday life after reunification. In *Simple Stories*, he examines characters, relationships, the everyday and the extraordinar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depicts the direct real-life consequences of socio-political events. Far less ironic and parodic, he describes the collapse of the GDR and the resulting state unification. Schulze emphasizes the existential importance of the events for so many people in East Germany. Eung-jun Lee's 2009 novel *Private Life of the Nation* depicts a Korea reunified through the peaceful absorption of the North by the South. The novel's dystopian, even cynical depiction of what unification could look like makes the point that the division of Korea is not merely one of a communist North and a capitalist South demarcated by a border at the armistice line. Lee's interwoven stories reflect changed biographies, the change in ment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reunification and the challenges of a new everyday life after reunification.

**[Keywords]** German reunification, Korean reunification, life after reunification, Ingo Schulze, Eung-jun Lee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13일 / 논문심사일: 2023년 8월 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7일

**[저자연락처]** figaro0505@hanmail.net